

GIST, 세계적 전자현미경 기업 '가탄'과 손잡고 첨단분석 기술센터 구축

- 8월 19일(수), GIST·가탄·로티스코리아 업무협약 체결... GIST 중앙기기연구소 첨단분석센터에 '가탄 기술센터(GTC)' 구축
- 국내 연구자 대상 최신 분석기술 교육·장비 시연·기술지원 등 개방형 플랫폼 운영



▲ GIST-가탄(Gatan)-(주)로티스코리아 업무협약 기념 단체 사진. (왼쪽부터) 가탄 로이스턴 테오(Royston Teo) 아시아 총괄책임자, GIST 중앙기기연구소 임현섭 소장, GIST 김용철 연구부총장, (주)로티스코리아 서홍제 대표이사, GIST 임기철 총장, 가탄 스티븐 믹(Stephen Mick) 대표, GIST 정성호 교학부총장, (주)로티스코리아 이경우 이사, GIST 이은지 대외협력처장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8월 19일(수) GIST 중앙기기연구소에서 세계적인 전자현미경 분석 솔루션 기업 가탄(Gatan) 및 국내 공식 총판인 (주)로티스코리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기철 총장, 정성호 교학부총장, 김용철 연구부총장, 이은지 대외협력처장, 임현섭 중앙기기연구소장 등 GIST 주요 보직자 및 가탄 스티븐 믹(Stephen Mick) 대표, 로이스턴 테오(Royston Teo) 아시아 총괄책임자, (주)로티스코리아 서홍제 대표이사, 이경우 이사 등이 참석했다.

가탄(Gatan)은 전자현미경으로 물질의 구조와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직접전자검출기, 에너지 여과기,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등 첨단 분석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가탄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세계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주)로티스코리아는 가탄의 국내 공식 총판으로서 관련 장비의 국내 공급과 기술지원, 사용자 교육 등을 담당하며 국내 연구자들의 전자현미경 분석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GIST와 가탄, (주)로티스코리아는 GIST 중앙기기연구소 첨단분석센터의 기존 전자현미경실을 '가탄 기술센터(Gatan Technical Center, GTC)'로 운영한다.

가탄 기술센터는 GIST가 보유한 첨단 전자현미경과 가탄의 최신 분석기술을 결합해 국내 연구자들이 최신 전자현미경 분석기술을 배우고 직접 장비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기술지원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GIST-가탄(Gatan)-(주)로티스코리아 업무협약 기관 대표 기념 사진. (왼쪽부터) (주)로티스코리아 서홍제 대표이사, GIST 임기철 총장, 가탄 스티븐 므(Stephen Mick) 대표

이를 위해 세 기관은 ▲가탄 장비를 활용한 사용자 교육·기술 세미나·워크숍 운영 ▲최신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장비 시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자현미경 분석을 위한 시료 제작 및 관련 장비·시설 지원 ▲연구자를 위한 분석기술 자문 및 장비 활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GIST는 중앙기기연구소 첨단분석센터가 보유한 전자현미경과 관련 시설을 교육과 장비 시연, 연구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주)로티스코리아는 가탄의 국내 공식 파트너로서 가탄 기술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세미나·워크숍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탄은 최신 분석장비와 응용기술을 GIST의 전자현미경과 연계하고, 관련 소프트웨어·기술자료 및 전문 기술인력을 지원해 국내 연구자들이 최신 분석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GIST 중앙기기연구소 임현섭 소장(첨단분석센터장 겸무)은 “가탄 기술센터(GTC)는 GIST가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세계적인 전자현미경 분석기술을 연결하는 중요한 협력 거점”이라며 “국내 연구자들이 최신 분석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연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국가 첨단 분석 역량과 연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가탄 스티븐 믹 대표는 “GIST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연구자들에게 세계 수준의 분석기술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가탄 기술센터가 연구 현장과 첨단 분석기술을 연결하고 새로운 연구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로티스코리아 서홍제 대표이사는 “가탄의 국내 공식 파트너로서 GIST와 긴밀히 협력해 연구자들이 최신 전자현미경 분석기술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